

뉴스레터 DKUMC



제3권 7호 2013년 7월 14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송종남 목사

“첫 열매”

목회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경기도 가평으로 나갔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까지 가려면 걸어서 30 - 40분 걸리는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작으로 불을 때서 방을 덥히고, 화롯불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이름도 근심이 없는 동네라는 뜻의 ‘우무동’이었듯이, 18가구가 웅기종기 모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천연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으로 처음 부임하던 날, 교회 사택 옆에 살던 할머니 권사님은 새 전도사님

이 온다고... 쓸어도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산골길을 빗자루로 일일이 다 쓸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감동 뭉치로 가슴을 꽉 채우면서 시작된 그곳의 목회는 월 사례비가 8만원이었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부유한 목회였습니다. 철철이 성도님들이 날라다 주시는 푸성귀만 해도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밥상으로 배가 불렀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은, 밭에서 가장 처음 딴 것, 산에 가서 가장 처음 따온 것을 가져다 주실 때였습니다. 처음 딴 것이라 어떤 것은 튼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꼬부라진 오이며 가지, 그리고 벌레가 먹은 과일까지, 지실이 바짝 든 것이라

해도 어쨌든 처음 거둔 열매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종님’(종에게도 남자를 붙여서)에게 드려야한다는 그분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담임목사 칼럼



그런 믿음의 표시인 첫 열매를 받아먹을 때마다 제가 과연 이것을 받아먹어도 되나...하면서 많이 과분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배불리 먹으면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 전

통이 미국까지 고스란히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감동을 받습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이곳에서는 마켓에서 모든 것을 사먹으니까 감히 밭에다 무엇을 심어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디다 심으셨는지 직접 심어서 거둔 첫 열매라고 하면서 가져다 주시는 것들을 받을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뭉클 합니다. 잊그제도 어떤 분이 첫 열매라고 오이며, 고추, 깻잎, 호박을 주셨습니다. 오이 중에 하나는 완전히 꼬부라져 있었지만 ‘가장 처음 딴 것이라 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생기고 튼실한 오이보다 꼬부라진 오이에서 전해져오는 감동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 감동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델라웨어한인교회 소식지

(담임목사 컬럼)

그렇습니다. 목회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첫 열매를 받아먹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그런 정성을 쏟아 부어 주시니 늘 마음 불편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정성과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믿음이고 정성이라는 것ですよ. 그분들의 기도라는 것ですよ.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먹을 때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게 주시는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 분에 넘치는 정성을 저도 목회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첫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들의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먹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성도님들의 그런 정성

과 사랑, 기도, 마음을 먹은 탓에 저는 오늘도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마음이 부자인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참 가슴 떨리는 사랑입니다. 이 떨림과 감동으로 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송종남 목사

2013 여름성경학교

1년 동안 우리 아동부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제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이번 2013년도 여름성경학교는 “Everywhere Fun Fair” 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매일 한곳씩 소개하며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 아이들의 눈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과 카니발을 주제로 말씀, 찬양, 즐거움이 함께 어울어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쑥 자라는 귀한 은혜의 추억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보게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 흥얼거려지는 여름성경학교때 배운 찬양들과 성경구절들 그리고 델라웨어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네라고 감탄을 연발하시던 부모님들, 이런 저런 모습들 속에서 나

모르는 감사와 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이뤄낸 김유찬전도사님과 청소년들에게 감사하고 매일 우리 아이들의 육의 양식을 책임지셨던 많은 엄마들,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와 청소를 해주신 아빠들,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주신 분들, 기도로 지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것에 더욱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여름성경학교를 많은 아이들이 일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분명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그 작은 영혼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설레이며 일년을 기다리듯 우리도 일년을 기도로 준비해서 보다 알찬 것



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울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며 원하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 선교의 시작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새겨보며 귀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3년도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 합니다.

윤선행 집사
아동부 교육부장



우리 교회에 내리셨던 성령님

1979년 7월 21일 창립된 우리교회는 성령님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었다. 1984년 6월 7일부터 있었던 부흥회는 우리교회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부흥강사는 장로교 출신에 태혜목사님였다. 그는 고등학교선생 출신으로 LA에서 목회를 했으나 실패하고 산에 들어가 4년간 기도한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흥강사가 되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NewarkUMC의 소예배실에 약30명이 모였는데 말씀선포중 목사님의 손의 방향에 따라 성도들이 전부 넘어지면서 쿠당탕 소리를 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음성을 내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겁이났다. 집회후 강사목사님에게 밤참을 대접했는데 나를 주시하

더니 "안집사님,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되시지요? 그런데 집사님은 사람은 좋은데 가끔 화를 버럭버럭내시죠?" 처음보는 나를 투시하는 것이었다.

토요일 새벽집회때 온갖 방언으로 시끌벅적하였다. 곽윤희집사는 중국말로 방언을 하고 안의숙집사는 천국의 새 노래를 했다. 예목사님이 단에서 내려 오더니 서있는 나와 유성은집사의 머리위에 안수를 하는 순간 나의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후 나는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안의숙집사는 몸을 투시하는 능력이 생겨 어떤분의 병있는 부분을 볼수있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생겨 환자의 다리만 잡

아도 나을 것 같았다고 했다. 김민웅집사는 어떤 강한힘이 자기 목덜미를 누르는데 빠져나올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치학박사 과정에 있던 유학생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이들 외에도 주화자, 이연옥, 황정순집사등이 성령세례를 받았다.

이 일이후 우리교회는 성령충만하여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되었다. 마치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셨던 것같이 우리 교회에 내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밖에서는 "저 교회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양했다. 계속해서 우리교회는 기도와 말씀배움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해왔다.

2013,6,27

안세현 원로장로

참 좋은 우리 교회

창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교회의 기념지를 출간한 지도 어느덧 3년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 때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3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Hockessin의 높은 언덕에 팔각형의 형태로 지은 교회로 그 아담하고 푸근한 분위기가 좋으며,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상을 생각해 봅니다.

-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서 성전에는 흘러나오는 물로 물고기가 살며 온갖 생물이 번성하듯, 한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이 활기차게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며 사탄의 무리가 엮드려 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 영적 지도자로 송종남 목사님을 모셔서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질서가 잡힌 교회
-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시아와 남미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손길을 뻗어 선교하는 교회
- 특수한 상황을 심분 살려,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교회

- 주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대언하며, 젊은이들은 항상 깨어 있어 성령의 계시를 받고, 늙은이들은 미래를 보며 충고하는 교회
-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형제자매를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교회
- 기도로 뭉쳐서 성경 가르침과 배움에 몰두하고 목장 활동이 원활하여 친교를 나누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부흥하며 승리하는 교회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삶의 변화를 가져와 주님께 사랑 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왕영두 원로장로



2013 우리교회 단기선교

우리 교회의 2013년 단기선교는 아이티, 과라니족 그리고 호피 인디언에게 갑니다.

호피 미션:



청소년부에서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피미션을 갑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북동쪽에 위치한 오색 사막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호피인디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호피는 그들 부족의 언어로 ‘평화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호피미션팀은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아이티 VBS 미션: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EM 청년부에서 아이티 단기선교를 갑니다.

아이티 EM 청년부 단기선교는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로, 그곳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름성경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EM 청년들은 Yard Sale와 Banquet을 하였고, 대학생들 스스로도 Fund Raising을 하였습니다. Yard Sale와 Banquet을 위하여 도와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EM 청년부 단기 선교는 아이티에서 사역하시는 김승돈 선교사님과 함께 “Love & Hope Center”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티는 3년전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현재 버려진 고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아이티에서 “Good News 2013” (복음의 기쁜 소식 2013)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돈 선교사님의 지도에 따라 여름성경학교는 오전에 그곳 교회에서 진행될 것이며 오후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고아원들을 방문하며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지역을 다니며 텐트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이티 의료선교:



아이티 의료선교는 2010년부터 시작한 선교로써 올해가 4번째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갑니다.

아이티 의료 선교팀들은 그곳에서 환

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의료선교입니다.

과라니 의료선교:



브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미시오 이과수에 사는 인디오 과라니부족을 위하여 8월19일부터29일까지 6명이 갑니다.

과라니부족은 남한만한 크기의 정글에서 5000명이 살고있는데, 비문명인으로 역사속에서 잊혀져가는 부족들입니다.

15년전 한국에서 파송되었던 이광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처음 들어갔고 작년부터 우리교회에서 의료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 후로 많은 의료선교와 신학교 신학생을 돕기위한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2013년도에 계획한 모든 단기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전파에 함께 동참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선교팀들을 위해 온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단기선교 일정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순 권사
선교부 부장

교 인 탐 방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찾아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취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7월의 신앙탐방은 김병채 성도님입니다.

1.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필라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84년도 RCA의 반도체 엔지니어로 취직해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Eric 22, Robert 20), 그리고 딸(Iris 18)이 있습니다.



2.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시작이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7살) 동네에 있는 천막교회에 혼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 혼자 바들바들 떨며 교회를 갔어요. 내가 이렇게 추운 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날 많이 예뻐하시겠지, 무슨 상을 주실까, 하는 어린마음이었나봐요. 천막 안에 처음 들어가 신발을 벗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제가 처음 본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은 아주 가난하고, 낮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주신 조그만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건 다 커서지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성탄절 음악소리에 감동받아 끌려갔어요, 저런 곡들을 찬양 받으시는 신, 저분이 바로 참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3. 음악에 특별한 달란트를 받으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활동을 했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 혼자 즐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상에 좋은 곡들이 아무리 많아도 창조주를 갈망하는 목마른 찬송곡들 만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없지요. 작년에는 매일 밤 아내에게 찬송곡들을 노래해 주었어요. 노래가 끝나면 항상 “잘했어요” 하며 칭찬해주었지요. 요즘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합니다.

4.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통한 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집사님께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전지전능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에 정당한 의미가 반듯이 있으리라 믿어요. 이 세상 만물 모든 시나리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설마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지는 않으리라 믿어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의 카드를 보여 주시겠지요. 그 날을 참고 기다립니다.

(인터뷰: 강태희 집사)

추천도서

“팔로우 미 (Follow me)”

저자 : David Platt

인생을 단번에 바꾸는 가장 강력한 명령, “Follow me”

인생을 단번에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 “Follow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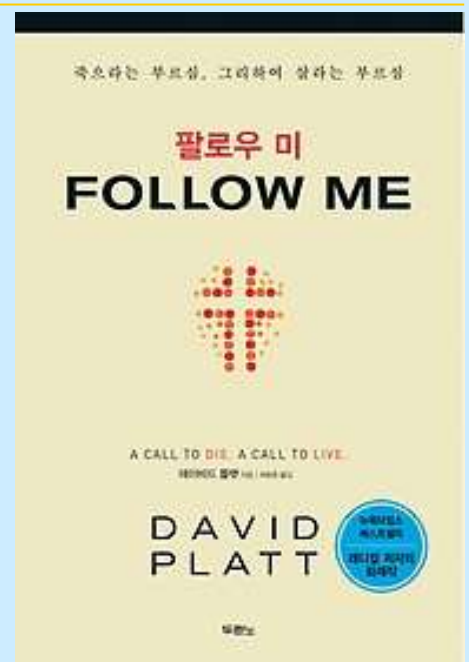
왜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나요?
...

우리의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물질주의에 만연한 교회를 향해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을 외쳤던 그가, 「팔로우 미」라는 책으로 돌아왔다. 전작 「래디컬」에서 우리 문화 속에 복음과 정반대되는 가치들을 과감하게 드러냈다면, 이번 「팔로우 미」에서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팔로우 JESUS’가 무엇인지, 그리고 팔로우 JESUS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팔로우 JESUS’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호소력 있게 말한다.

(도서부: 송미선 집사)



2013년 6월 포토갤러리



여름 성경 학교 2013
6월 17일 - 21일



여선교회 찬양의 밤
6월 7일



선교부 노숙자선교
6월 15일



EM 청년 아이티선교 후원의 밤
6월 29일



July 2013

7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 쏘레이 목장 주최 수요예배	4	5	6
7 *EM 연합가족예배 * 목장 지도자훈련 * 시무장로 회의	8	9 * 청소년 호피선교	10 * 청소년 호피선교 * 우리 목장 주최 수요예배	11 * 청소년 호피선교	12 * 청소년 호피선교	13 * 청소년 호피선교
14 * 전교인 대청소 * 청소년 호피선교	15 * 청소년 호피선교 * Meals on Wheels	16 * 청소년 호피선교	17 * 자마 목장 주최 수요예배	18	19	20
21 * 34주년 창립 기념 예배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22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23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24 * 밀알목장 주최 수요예배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재정위원회 모임	25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26 *EM 청년부 아이티 선교	27
28 * 정기 임원회	29	30	31 * 쿠르드목장 주최 수요예배			

August 2013 - 8월의 일정

- 8월 4일(주일): EM 가족연합예배, 목장 지도자 훈련
- 8월 10일(토): 여선교회연합회 선교학교
- 8월 11일(토): 성가대 세미나
- 8월 17일(토): 아동부 Welcome Banquet
- 8월 19일(월): 여선교회 Meals on Wheels
- 8월 19일(월)-28일(수): 과라니 단기선교

D K U M C
2013년 단기선교
 2013 MISSION TRIPS

호 피(청소년) 7.8~7.13
 아이티(2세 청년) 7.21~7.26
 과라니 8.19~8.29
 아이티 10.8~10.12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